

신 · 재생에너지 매출 8조원 상회

2010년 8조800억원 달해 ... 그린프로젝트 · RPS 제도로 보급 확대

정부가 신 ·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지식경제부에 따르면, 신 · 재생에너지 매출은 2007년 1조2500억원에서 2010년 8조800억원으로 6.5배 성장했다.

수출액은 6억2500만달러에서 7.3배 늘어난 45억3500만달러, 민간투자는 7000억원에서 5.1배 증가한 3조5500억원을 기록했으며,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.

보급 측면에서도 신 ·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560만9000TOE(석유환산톤)에서 659만7000TOE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원 보급량은 연료전지가 23.9배, 태양광이 10.9배, 풍력이 2.2배 늘어났다.

신 · 재생에너지산업 성장동향

구 분	단 위	2007	2009	2010		2011	
				실 적	증가율	예 상	증가율
매 출	10억원	1,249	4,749	8,078	70%	14,937	85%
수 출	100만달러	625	2,676	4,535	69%	8,655	91%
투 자	10억원	696	2,993	3,549	19%	4,552	28%

지식경제부는 신 ·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· 제도 정비와 예산 ·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.

또 우체국 · 학교 · 항만 · 섬 · 고속도로 · 물류단지 · 공장 · 발전소 · 산업단지 · 군대를 10대 그린프로젝트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.

아울러 2012년 시행되는 발전기관의 신 ·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enewable Portfolio Standards)를 통해 신 ·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.

RPS는 발전사가 발전총량의 2.0%를 신 ·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.

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10대 그린 프로젝트가 이제 5%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보아야 한다”며 신 ·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08/08>